

토굴 저장 진안김치 나온다

‘토굴형 저온저장 진안김치 브랜드화’,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선정

진안군 ‘토굴형 저온저장 진안김치 브랜드화 사업’이 전북도 공모사업인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에 선정됐다.

17일 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2월 ‘진안군 삼락농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진안군 삼락농정협의회(위원장 부군수)를 구성하였다. 이후 토굴형 저온저장 진안김치 브랜드화사업을 진안군 삼락농정 특화사업으로 결정 공모하게 됐다.

토굴형 저온저장 진안김치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생산 중에 있는 진안마이산김치를 토굴형 저온저장을 통해 숙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세부내용은 600㎡ 규모의 토굴형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보조금이 7억 5,000만원, 사업시행주체인 부귀농협이 7억 5,000만원이다.

김치의 제조과정에서 토굴형 저온저장은 일반 저온저장에 비해 전기 사용이 적고 온도와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김치의 숙성이 자연스럽고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김치의 깊은 맛을 유지하며 유용미생물이 많아져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의 마이산김치 생산시설에 토굴형 저온저장고가 갖춰지면 김치의 부가가치 증가는 물론 이색적인 토굴형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진안김치의 브랜드 경쟁

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장시설을 김치의 품목별 원재료 저장에 활용하여 원재료 구매능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구매량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흡수출하에 대한 대응책이 되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향로 군수는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진안김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진안농산물 중 하나”며, “토굴형 저온저장시설이 도입되면 진안고원 김치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클린 존 조성

환경공단-일토씨엔엠과 클린존 조성 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난 14일에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유)일토씨엔엠과 무주·진안·장수지역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이하 수질 TMS) 클린 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질 TMS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 구축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그리고 보다 정확한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측정자료 생산을 위해 수질 TMS 청렴 운영·관리를 실천하고 수질 TMS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질 TMS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운영 또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무주군이 지난 14일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유)일토씨엔엠과 무주·진안·장수지역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클린 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 계획이다.

시설사업소 이형재 하수도 담당은 “타 지자체에서 수질 TMS 측정기기 조작과 시료채취 펌프 조작 사건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질 TMS 클린 존을 조성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 우수사업장으로서의 노하우도

컨설팅을 자율적 운영기반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질 TMS는 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에 설치해 자동으로 방류수 속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치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는 장치로,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부과금 산정 등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설천면 진평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은 설천면 단량리 진평마을이 2017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전북도 공모사업)됐다고 밝혔다.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군은 내년 6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 어귀에 힐

링 광장을 조성하고 다목적센터 리모델링과 마을회관 앞 주차장 정비, 하천위험구간과 노후화된 담장정비, 반디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진평마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

한 기본·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선정됐던 작심면 사천리 마산마을은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힐링 공원과 다목적센터를 신속 중이다. 또한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토마토 집하장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봄 여행은 ‘장수 시티 투어버스’로

장수군-남북여행 업무 협약 체결... 24일부터 운행

장수군과 남북여행이 17일 ‘장수 시티 투어버스’ 운행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투어버스는 오는 24일부터 오전 9시에 전주한옥마을 르윈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장수 스타체육장과 논개사당, 논개생가, 도개비 전시관 등을 돌아보고 다시 전주로 돌아가는 순환버스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봄철을 맞아 4월부터 5월 초까지는 장수 봉화산의 만개한 철쭉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코스

로 운행될 예정이다.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장수의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소개한다.

요금은 어른 9,000원, 경로·아동은 8,000원이고,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출시된 전북투어패스카드 소지자에 한해 어른 7,000원, 경로·아동은 6,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접수는 남북여행사(1588-1466)와 시티투어 홈페이지(www.nbtou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송아지 로봇포유기 시범사업 시행

진안군이 IT기술을 이용해 송아지의 포유와 이유를 자동으로 하고 개별 정밀 영양관리를 하는 로봇포유기 시범사업을 관내 젓소 사육 농가에 시범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로봇포유기는 어린기축에게 개별별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시켜 송아지의 체중과 영양 상태에 따라 전자동으로 맞춤형 사양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사성 질병 예방, 육성을 증대, 폐사를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로봇포유기를 활용하면 건강 한 송아지를 키울 수 있는데 사료 섭취량이 31%나 증가해 성장이 빠르다. 또 반추위 발달이 33%나 향상되어 질병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포유기간을 약 14일이나 단축시키는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포유기를 도입한 시범농가는 “태어난 송아지가 3~4일만 초유를 먹고 1~2일 젓 먹는 훈련만 거치면, 약 1.5개월간 일령과 체중에 맞는 포유량, 포유횟수 등을 설정해 자동으로

젓을 먹고 있어 송아지 성장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장수군에서는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유연함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20일부터 5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기로 했다.

장수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 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65세이상 연중 '무료'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만 65세이상 군민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올해는 만65세 된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각 면지역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접종 받을 수 있다.

이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후 1회 접종만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 질환의 주요 임상 증후군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으로 성인에게 폐렴이 가장 흔하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인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장수군보건의료원’(예방접종실 350-3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

진안군은 17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이향로 군수를 비롯한 박명석 군의회 의장과 지킴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행사를 갖고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수질오염행위 등에 대한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 직후 지킴이들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 안전한 활동을 위해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필요성과 지킴이 세부 활동 내용, 근무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 분기 1회 이상 추가 교육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지킴이 활동은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상수원 지킴이로 채용하고 환경감시의 계도, 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광역상수원 지킴이의 임무, 환경의식 등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3명을 선발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특히, 사람이 많은 행사철과 토·일요일에 중점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향로 진안군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지난해 45명의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512건의 환경감시와 계도를 하였으며, 약 27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